

비중확대 (Maintain)

Industry Report
2016.9.8

[운송/에너지]

류제현
02-768-4175
jay.ryu@miraesasset.com

김충현, CFA
02-768-4126
choonghyun.kim@miraesasset.com

항공업

8월 인천공항 실적: 여객 수요 호조 지속

8월 인천공항 실적: 수요 개선세 유지

1) 여객: 2016년 8월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수송객수 증가율은 22.4% YoY(7월 44.7%, 이하 증가율은 YoY 기준)를 기록하였다. 지난 6~7월대비 메르스 기저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저효과를 제거한 2년 평균 CAGR은 10.1%(7월 13.8%)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2010년 이후 8월 증가율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드(THAAD) 이슈로 인해 수요 감소를 우려했던 중국(36.9%, 7월 93.3%)노선은 일본(31.6%, 7월 52.3%)과 함께 역대 최대 여행객수를 경신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단, 태국(2.7%, 7월 18.6%)은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장거리 노선 중에서는 미국(4.9%, 7월 9.1%)과 독일(2.5%, 7월 5.9%) 노선 모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L/F indicator는 1.6pt YoY(7월 10.8pt)를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탑승률 개선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2) 화물: 화물 수송량은 3.2%(7월 7.7%)은 전월 대비 둔화되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4.9%, 7월 8.1%)과 일본(0.6%, 7월 5.9%) 노선은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최대 노선인 미국(-1.2%, 7월 6.5%)과 독일(-1.9%, 7월 -1.7%)은 부진하였다. 화물 탑재율(L/F Indicator 5.3pt)은 공급축소효과(-2.1% YoY)로 전년 동기대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항공사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수송 증가율은 각각 5.6%(7월 24.8%), 9.2%(7월 30.0%)를 기록하였다. 화물 수송 증가율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0.6%(7월 5.1%), 0.6%(7월 5.7%)로 다소 부진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지속: 점유율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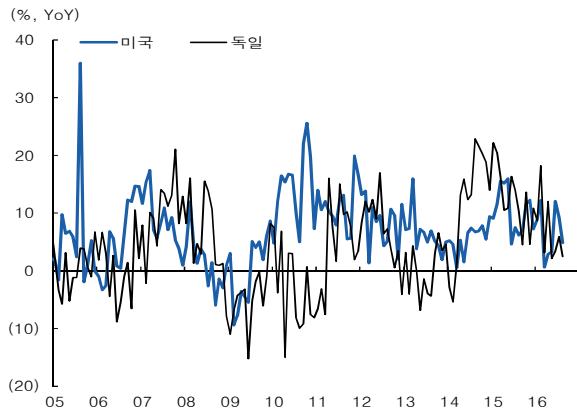
8월 LCC 수송량은 26.5% YoY(7월 37.7% YoY)로 고성장세를 지속했다. 국내선의 LCC 점유율은 에어서울의 취항으로 57.4%(7월 55.4%)로 상승하였다.

단거리 국제노선에서의 전체 LCC 점유율(31.0%, 7월 30.8%)과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 24.1%(7월 23.6%)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노선을 승계한 에어서울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노선에 취항할 것으로 알려져, 저비용항공사들의 점유율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거리 국제노선에서는 진에어(6.9%, 수송량 100.6% YoY)가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제주항공(6.4%, 수송량 47.6% YoY)은 2위를 기록하였다.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하반기 화물 성수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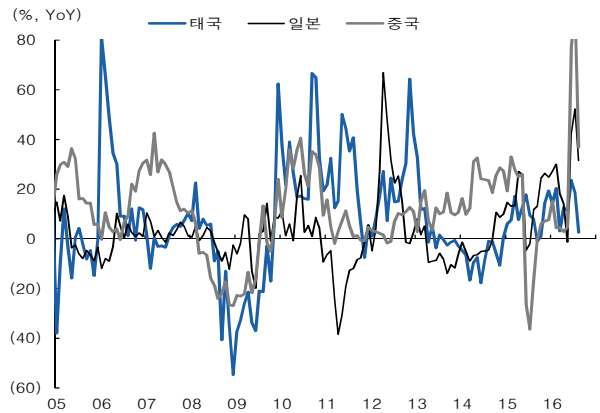
여객 수송량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1) 8월이 최성수기인 점, 2) 메르스 기저효과 감소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화물 부문도 하반기 성수기 및 선진국 경기 개선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종목으로는 대한항공(003490/매수/TP 38,000 원)을 선호한다. 주가 상승 이후 한진해운 지원에 대한 리스크가 재발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이미 개시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적으로 수출 물류 혼란 진정과 함께 한진해운 지원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그림 1. 인천공항 장거리 여객 수요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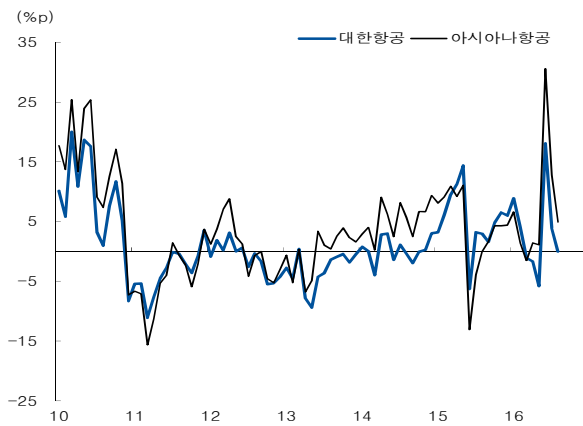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인천공항 단거리 여객 수요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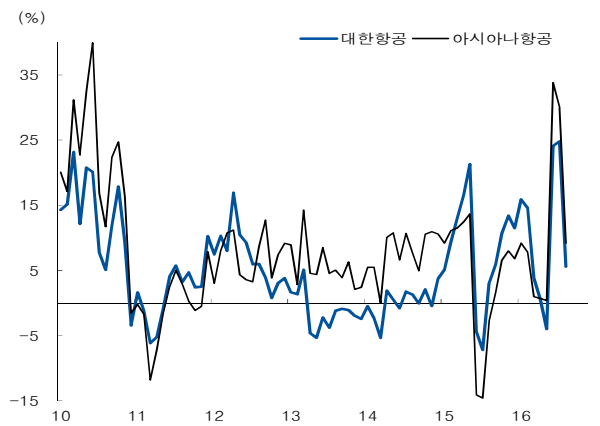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국제여객 증감률: 대한항공 vs. 아시아나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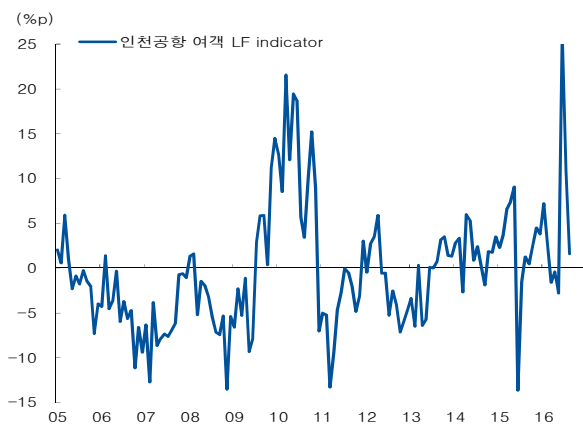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4. 여객 L/F indicator: 대한항공 vs. 아시아나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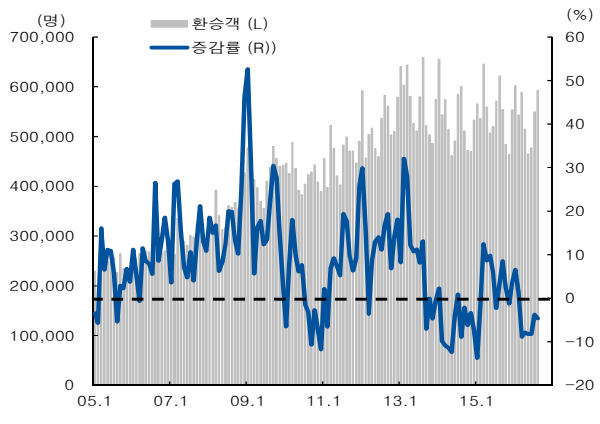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5. 인천공항 여객 L/F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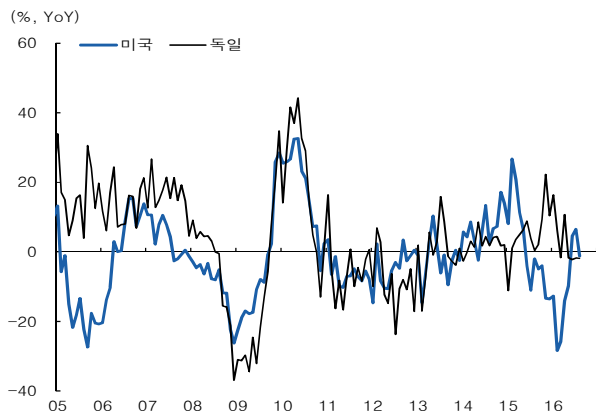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6. 인천공항 환승객 수요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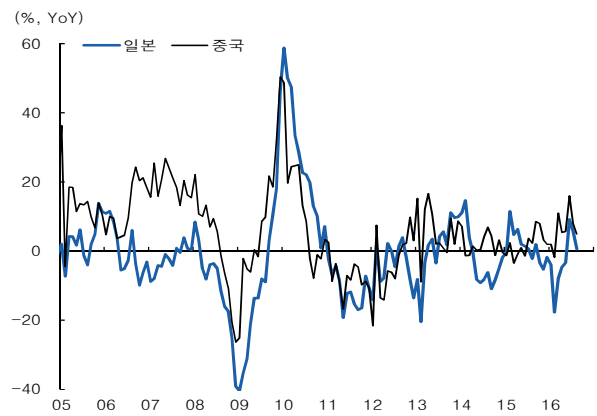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7. 인천공항 장거리 화물 수송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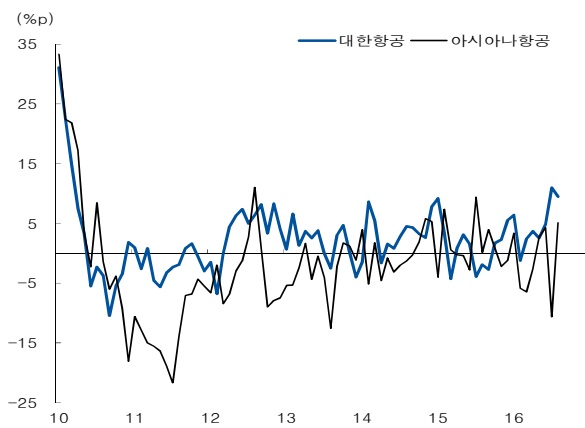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8. 인천공항 단거리 화물 수송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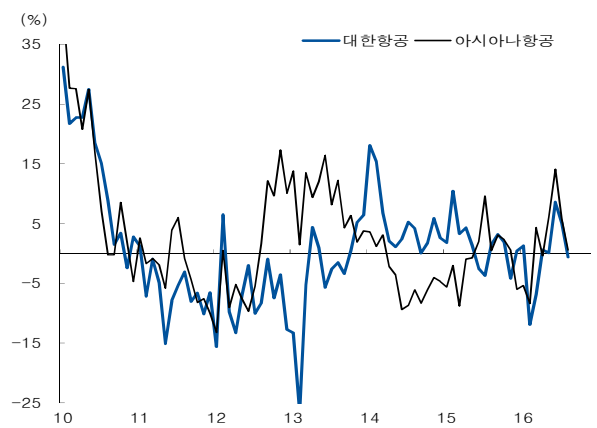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9. 화물 L/F indicator: 대한항공 vs. 아시아나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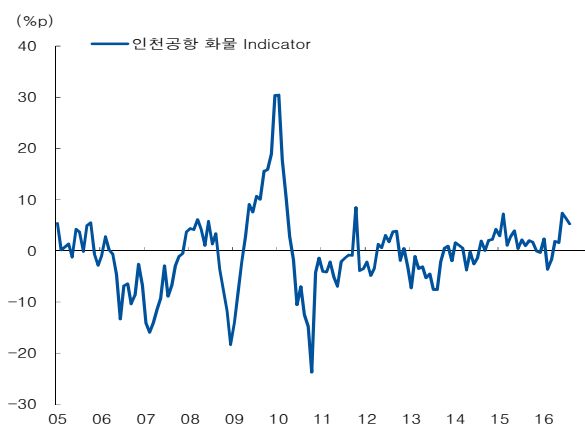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0. 국제화물 증감률: 대한항공 vs. 아시아나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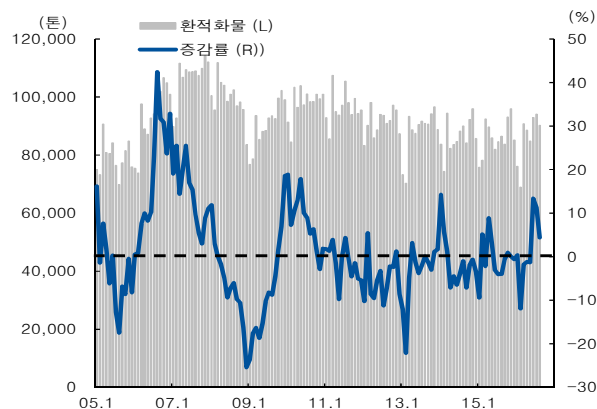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1. 인천공항 화물 L/F indicator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2. 인천공항 환적화물 수송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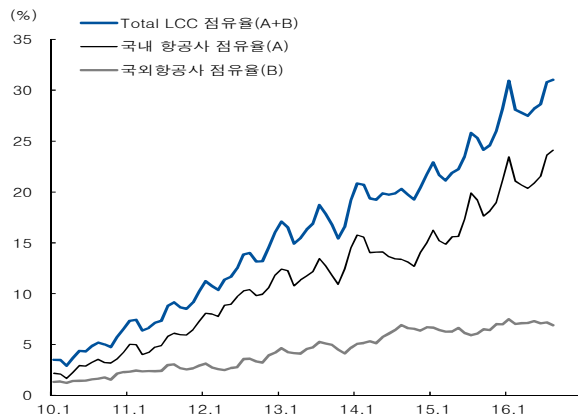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항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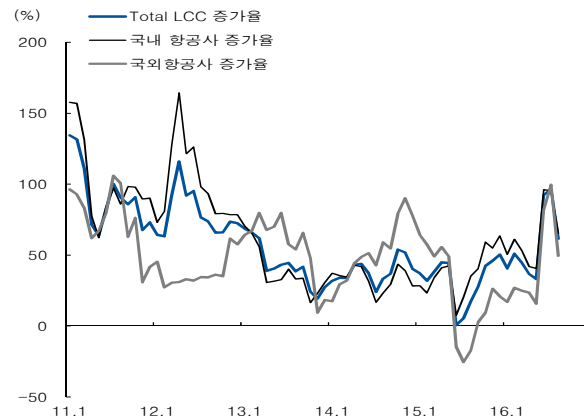
8월 인천공항 실적: 여객 수요 호조 지속

그림 13. 단거리 국제노선 LCC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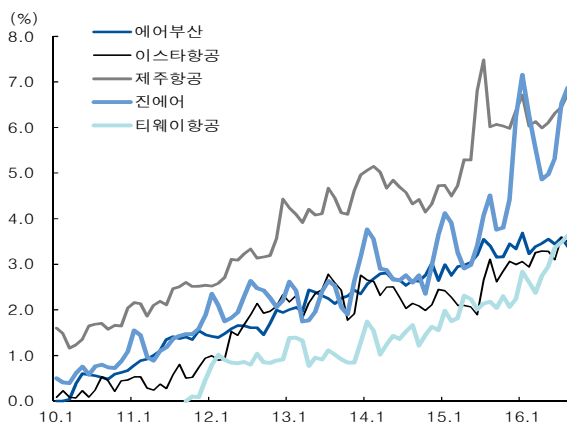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4. 단거리 국제노선 LCC 여객 수요 증감률(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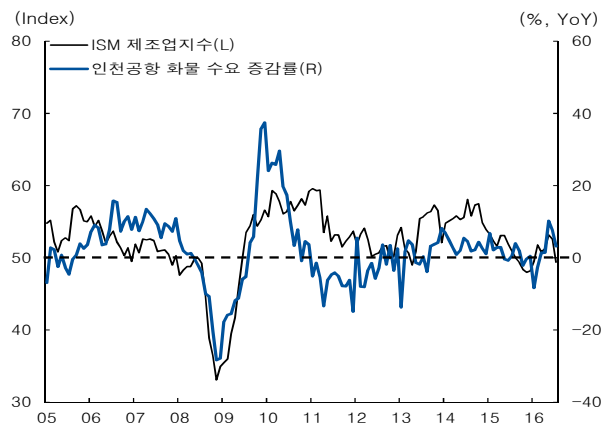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5. 단거리 국제선 국내 저가항공사 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6. ISM제조업 지수 vs. 인천공항 화물 수요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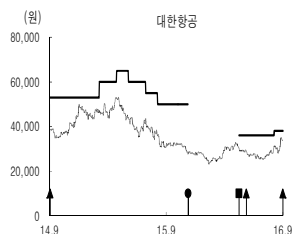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항공업

8월 인천공항 실적: 여객 수요 호조 지속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종목명(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종목명(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대한항공(003490)	2016.08.12	매수	38,000원		2015.05.14	매수	60,000원
	2016.05.17	매수	36,000원		2015.04.07	매수	65,000원
	2016.04.24	Trading Buy	36,000원		2015.02.12	매수	60,000원
	2015.11.17	중립	-		2014.09.11	매수	53,000원
	2015.08.13	매수	50,000원			분석 대상 제외	
	2015.07.07	매수	55,000원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매수(▲), Trading Buy(■), 중립(●), 비중축소(◆),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비중축소(매도)
70.73%	17.56%	11.71%	0.00%

*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